



2020 February Vol.89

# 대입정보매거진

대학입학 정보를 한눈에 받아보세요!



대입뉴스

## 2021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는  
2021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대입정보활용하기 1

2020학년도 추가모집  
지원 유의사항



대입정보활용하기 2

2021학년도  
대입전형 주요현황



'전공' 골라 골라!  
의료뷰티케어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선생님 칼럼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할까요?



'어디가' 활용수기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밀화학과  
19학번





# 2021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방법

구 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수 시 모 집	원서접수	2020. 9. 7.(월) ~ 11.(금)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0. 7. 6.(월) ~ 10.(금) 중 3일 이상	2019. 9. 6.(금) ~ 10.(화)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19. 7. 1.(월) ~ 10.(수)	
	전형기간	2020. 9. 12.(토) ~ 12. 14.(월)(94일)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7~8월 중 전형실시 권장	2019. 9. 11.(수) ~ 12. 9.(월)(90일)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7~8월 중 전형 권장)	
	합격자 발표	2020. 12. 15.(화) 까지	2019. 12. 10.(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20. 12. 16.(수) ~ 18.(금)(3일)	2019. 12. 11.(수) ~ 13.(금)(3일)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0. 12. 23.(수), 합격자 발표 21:00 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통보만 가능	2019. 12. 19.(목) 21:00 까지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0. 12. 24.(목)	2019. 12. 20.(금)	
정 시 모 집	원서접수		2020. 12. 26.(토) ~ 30.(수) 중 3일 이상	2019. 12. 26.(목) ~ 31.(화)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1. 1. 2.(토) ~ 10.(일)(9일)	2020. 1. 2.(목) ~ 10.(금)(9일)
		나군	2021. 1. 11.(월) ~ 19.(화)(9일)	2020. 1. 11.(토) ~ 19.(일)(9일)
		다군	2021. 1. 20.(수) ~ 28.(목)(9일)	2020. 1. 20.(월) ~ 30.(목)(11일)
	합격자 발표		2021. 2. 1.(월) 까지	2020. 2. 4.(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21. 2. 2.(화) ~ 4.(목)(3일)	2020. 2. 5.(수) ~ 7.(금)(3일)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1. 2. 16.(화), 합격자 발표는 21:00 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는 개별통보만 가능	2020. 2. 17.(월) 21:00 까지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1. 2. 17.(수)	2020. 2. 18.(화)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일 합격자 발표	2021. 2. 19.(목) ~ 25.(목) 21:00 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는 개별통보만 가능	2020. 2. 20.(목) ~ 27.(목) 21:00 까지
	등록 기간	2021. 2. 26.(금)	2020. 2. 28.(금)

가.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0. 9. 7.(월)~11.(금)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총 전형기간은 2020. 9. 12.(토)~12. 14.(월)까지 94일간이다.

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020. 7. 6.(월)~10.(금) 사이에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재외 한국학교 및 해외 소재 고등학교 등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7~8월 중 전형 실시를 권장한다.

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0. 12. 26.(토)~30.(수)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총 전형기간은 2021. 1. 2.(목)부터 1. 28.(목)까지이다.

라. 정시모집 군별 전형기간이 9~11일에서 9일로 감소함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이 2. 4.(화)에서 2. 1(월)로 당겨지고 정시 미등록총원 마감은 하루 당겨져 2.17.(수)에 정시모집이 종료된다.

마. 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021. 2. 19.(목)~25.(목)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며, 2021. 2. 26.(금) 등록까지 진행되어, 2월 26일(금)로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이 종료된다.

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http://www.adiga.kr))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http://www.kcue.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 2021학년도 수시모집 대입전형 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1(월)	2(수)	7(월)~ 11(금)	13(화)	19(목)	30(월)	9(수)	14(월)	15(화)	16(수)~ 18(금)	23(수)	24(금)
수시 학생부 기준일	9월 평가원 모의 평가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	수 능 시 험	정시 학생부 기준일	수능 성적 통지	전형 기간 종료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	수시 등록 기간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1:00)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아. 2021학년도 정시모집 대입전형 일정

11월	12월	2020년 1월			2월						
30(월)	26(토) ~30(수)	2(토)~ 10(일)	11(월) ~19(화)	20(수) ~28(목)	1(월)	2(화) ~4(목)	16(화)	17(수)	19(금) ~25(목)	25(목)	26(금)
정시 학생부 기준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가군	나군	다군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	정시 등록 기간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1:00)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추가 모집 원서 접수 및 전형일	추가 모집 합격자 발표 마감 (21:00)	추가 모집 등록 마감



# 2020학년도 추가모집 지원 유의사항



Q.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 추가모집 지원 가능

1. 정시모집 4년제 일반대학에 합격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한 자
2. 정시모집 4년제 일반대학 등록자이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등록을 포기한 자
3. 정시모집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록한 자
4.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수시·정시 합격자 및 등록자

## 추가모집 지원 불가능

1. 수시모집 합격자 및 등록자(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
2. 정시모집 4년제 일반대학에 등록한 자



Q.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나요?

-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최초 등록 및 총원합격하여 추가등록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나요? 수시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추가모집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나요?

- 추가모집 원서접수·전형·합격자 발표: 2020. 2. 20.(목)~27.(목) 21시
- 이후 대학별 추가모집 현황, 일정 및 전형 방법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2021학년도 대입전형 주요현황

## 가. 2020~2021학년도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비교

### (1) 수시모집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변화

- 전체 모집인원이 347,866명에서 347,447명으로 419명 감소되었고, 수시모집 선발인원도 268,776명(77.3%)에서 267,374명(77.0%)으로 1,402명(0.3%p)이 감소되었다.
-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은 146,924명으로 전년대비 0.1%p, 421명 감소되었다. 모집인원이 감소되었어도 수시와 정시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은 86,083명으로 전년 대비 0.4%p, 915명 증가되었다.
-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11,162명으로 전년 12,146명에 비해 0.3%p, 984명 감소되었다.
- 실기/실적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18,821명으로 전년 19,377명에서 556명 감소되었다.

### (2) 정시모집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변화

- 정시모집 인원은 79,090명(22.7%)에서 80,073명(23.0%)로 963명(0.3%p) 증가되었다.
- 수능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은 69,291명(19.9%)에서 70,771명(20.4%)로 1,480명(0.5%p) 증가되었다.
- 실기/실적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은 8,968명(2.6%)에서 8,356명(2.4%)로 612명(0.2%p) 감소되었다.
- 학생부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은 281명에서 270명으로 11명 감소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은 436명에서 424명으로 12명 감소되었다.

구분	전형유형	2021학년도(A)		2020학년도(B)		증감현황(C) (C)=(A)-(B)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46,924	42.3	147,345	42.4	▼421
	학생부위주(종합)	86,083	24.8	85,168	24.4	915
	논술위주	11,162	3.2	12,146	3.5	▼984
	실기위주	18,821	5.4	19,377	5.6	▼556
	기타(재외국민)	4,384	1.3	4,740	1.4	▼356
소계		267,374	77.0	268,776	77.3	▼1,402
정시	수능위주	70,771	20.4	69,291	19.9	1,480
	실기위주	8,356	2.4	8,968	2.6	▼612
	학생부위주(교과)	270	0.1	281	0.1	▼11
	학생부위주(종합)	424	0.1	436	0.1	▼12
	기타(재외국민)	252	0.0	114	0.0	138
소계		80,073	23.0	79,090	22.7	963
합 계		347,447	100.0	347,866	100.0	▼419

## 나. 2020~2021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 비교

### (1) 수시모집

- 일반학생전형의 모집인원은 122,650명에서 125,467명으로 2,817명 증가되었다.



- 정원내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119,306명에서 115,067명으로 4,239명 감소되었고, 이 중 대학별독자적기준전형의 모집인원은 92,667명에서 88,314명으로 4,353명이 감소되었고, 고른기회대상자전형은 22,172명에서 23,053명으로 881명 증가되었고, 특기자는 4,467명에서 3,700명으로 767명 감소되었다.
- 정원외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22,080명에서 22,456명으로 376명이 증가되었고, 농어촌학생이 8,550명에서 8,487명으로 63명 감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전형이 4,119명에서 4,110명으로 9명 감소, 특성화고졸업자 전형도 2,695명에서 2,564명으로 131명 감소된 반면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 4,947명으로 24명 증가,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도 1,422명으로 17명 증가, 서해5도 전형도 135명으로 11명이 증가, 계약학과 모집인원이 320명에서 754명으로 434명 증가되었다.

(2) 정시모집

- 정원내 전형 중 일반전형은 75,224명에서 75,767명으로 543명 증가되었고, 특별전형 중 대학별독자적기준전형은 919명에서 746명으로 173명 감소된 반면 실기/실적 전형은 196명에서 235명으로 39명이 증가, 고른기회대상자전형은 270명에서 291명으로 21명 증가되었다.
- 정원외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이 161명 증가된 1,128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은 7명 증가된 472명, 특성화고졸업자전형이 256명 증가한 623명,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은 5명 증가한 148명, 계약학과도 2명 증가한 185명을 선발하고, 특성화고졸업재직자 전형은 10명 감소한 223명, 서해5도전형도 3명 감소하여 3명을 선발한다.

(단위: 명)					
모집 시기	정원 내/외	전형명	모집인원		비고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수시	정원내	일반학생	125,467	122,650	2,817
		일반전형 소계	125,467	122,650	2,817
		대학별독자적기준	88,314	92,667	▼4,353
		고른기회대상자	23,053	22,172	881
		특기자	3,700	4,467	▼767
		특별전형(정원내) 소계	115,067	119,306	▼4,239
	정원외	농어촌 학생	8,487	8,550	▼6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4,110	4,119	▼9
		특성화고교 졸업자	2,564	2,695	▼131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4,947	4,811	136
		장애인등대상자	1,422	1,405	17
		서해5도	135	124	1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전형	31	56	▼25
		계약학과	754	320	434
		위탁교육생	3	—	3
		군위탁생	3	—	3
		특별전형(정원외) 소계	22,456	22,080	376



수시 소계			262,990	264,036	▼1,046	
정시	정원내	일반전형	75,767	75,224	543	
		일반전형 소계	75,767	75,224	543	
		대학별독자적기준	746	919	▼173	
		고른기회대상자	291	270	21	
		특기자	235	196	39	
		특별전형(정원내) 소계	1,272	1,385	▼113	
	정원외	농어촌 학생	1,128	967	161	
		특성화고교 졸업자	623	367	25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472	465	7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223	233	▼10	
		장애인등 대상자	148	143	5	
		서해5도	3	6	▼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전형	—	—	—	
		계약학과	185	183	2	
		위탁교육생	—	3	▼3	
		정시	군위탁생	—	—	—
			특별전형(정원외) 소계	2,782	2,367	415
정시 소계			79,821	78,976	845	
수시	정원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	4,384	4,740	▼356	
정시			252	114	138	
재외국민 소계			4,636	4,854	▼218	
합 계			347,447	347,866	▼419	

### (3) 전형별 모집인원

- 일반학생 대상의 전형은 수시모집에서 171개 대학에서 177개 대학으로 6개 대학이 증가, 모집인원도 125,467명으로 2,817명이 증가되었다. 정시모집에서는 190개 대학에서 192개 대학으로 2개 대학이 증가하였고 모집인원은 75,767명으로 543명 증가하였다.
- 대학별독자적기준 특별전형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우수자 전형이 64개 대학에서 63개 대학으로 1개 대학이 감소하였으나 모집인원은 32,385명에서 32,430명으로 45명이 증가되었다. 추천자(학교장/교사/자치단체장 등) 전형은 26개 대학에서 24개 대학으로 2개 대학이 감소하였고, 모집인원도 6,245명에서 5,530명으로 715명 감소하였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은 54개 대학에서 55개 대학으로 1개 대학이 증가하였고 모집인원도 1,903명에서 2,033명으로 130명 증가되었다.
- 특기자특별전형은 수시모집에서 체육, 어학, 컴퓨터/IT/SW 등의 분야에서 선발하는데 169개 대학에서 162개 대학으로 7개 대학이 감소하였고, 모집인원



도 4,467명에서 3,700명으로 767명 감소되었다. 정시모집에서는 이전년도와 동일한 10개 대학에서 선발하며 모집인원은 196명에서 235명으로 39명 증가하였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분야는 체육 분야로 83개 대학에서 2,064명을 선발하고, 어학 526명, 미술 140명, 음악 108명, 방송/공연 90명, 컴퓨터/IT/SW 83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체육 224명, 무용 3명, 기타 8명을 선발한다.

· 고른기회전형은 수시모집에서 정원내 모집인원이 19,043명에서 22,172명으로 3,129명이 증가되었고 정시모집에서는 294명에서 270명으로 24명 감소되었다.

(단위: 명)

전형구분	전형명	수시		정시		전체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일반전형	일반학생	177	125,467	192	75,767	193	201,234
대학별 독자적 기준 특별 전형 (정원내)	사회배려대상자(사회기여, 봉사 등)	55	2,032	1	1	56	2,033
	추천자(학교장, 교사, 자치단체장 등)	24	5,530	2	18	24	5,548
	학생부교과우수자	63	32,430	0	0	63	32,430
	학생부종합우수자	33	13,152	1	0	33	13,152
	종교인	24	1,210	11	152	24	1,362
	대학과정수료졸업자	3	37	0	0	3	37
	다문화 가정	11	121	1	0	11	121
	취업자	9	164	5	3	9	167
	산업대 우선선발	2	32	0	0	2	32
	검정고시출신자	3	39	0	0	3	39
	대안학교출신자	6	137	0	0	6	137
	해외유학생	1	110	0	0	1	110
	해외유학생, 검정고시출신자, 대안학교출신자 등	1	29	0	0	1	29
	기타	122	33,291	33	572	125	33,863
특기자 특별 전형	문학	6	49	0	0	6	49
	어학	15	526	1	0	15	526
	음악	6	108	1	0	7	108
	미술	12	140	0	0	12	140
	무용	4	61	1	3	5	64
	체육	83	2,064	6	224	83	2,288
	컴퓨터/IT/SW	6	83	0	0	6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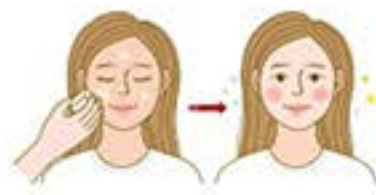


(정원내)	미용/의상	3	20	0	0	3	20
	조리	1	3	0	0	1	3
	기타	13	477	1	8	14	485
	수학/과학	2	73	0	0	2	73
	방송/공연	9	90	0	0	9	90
	공학/기능/발명/로봇	2	6	0	0	2	6
고른 기회 특별 전형 (정원내)	고른기회 대상자(통합)	73	4,694	1	0	73	4,694
	국가보훈대상자	40	589	4	8	43	597
	지역인재	86	16,283	11	238	86	16,521
	농어촌학생	6	196	0	0	6	19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7	245	0	0	7	245
	특성화고교 졸업자	4	69	0	0	4	69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13	31	4	4	15	35
	만학도	15	185	9	34	19	219
	성인학습자	15	761	12	7	15	768
특별 전형 (정원외)	농어촌학생	171	8,487	166	1,128	187	9,61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135	4,110	135	623	154	4,733
	특성화고교 졸업자	123	2,564	124	472	140	3,036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67	4,947	60	223	68	5,170
	장애인등 대상자	92	1,422	55	148	108	1,570
	서해5도	16	135	8	3	16	13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전형	1	31	1	0	1	31
	계약학과	4	239	4	40	5	279
	계약학과(채용조건형)	10	515	11	125	12	640
	계약학과(재교육형)	2	0	2	20	4	20
	정부위탁생	13	3	6	0	15	3



	군위탁생	9	3	11	0	15	3
재외국민 특별 전형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127	4,256	33	247	134	4,503
	북한이탈주민	107	27	29	5	116	32
	전교육과정 이수자(3월)	117	22	31	0	125	22
	전교육과정 이수자(9월)	27	0	3	0	28	0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3월)	118	59	54	0	140	59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9월)	76	20	5	0	79	20
합 계		2,094	267,354	1,030	80,073	2,255	347,427






## "의료뷰티케어학과"

### 피부미용

피부미용 분야는 피부, 헤어, 메이크업 등 인간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피부학, 피부미용학, 해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 얼굴관리, 전신관리 등이 있다.

중원대학교 의료뷰티케어학과 임정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의료뷰티케어과에서 뷰티 쪽으로 전공하고 있으며 피부,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중에서 메이크업을 중점으로 맡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에게 화장해주면서 친구들이 제가 해준 화장을 보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한 마음에 꿈을 뷰티 쪽으로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과 미래의 진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에게는 메이크업을 전공으로 하라는 말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종합)으로 면접50%와 학생부50%로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고자 국가자격증(메이크업) 먼저 취득하여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고3 때 급하게 자격증을 취득하려다 보니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자격증 공부에 임하게 되어 자세하게 못 배운 점이 있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학교에 있는 진로체험의 날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메이크업을 해주는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 Q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정샘물의 시크릿 뷰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원장님만의 오랜 메이크업 노하우가 담겨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지만 모든 메이크업에 응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 Q 학교에 대한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교수님들이 열정이 넘치시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게 특강, 봉사, 프로그램 등 유익한 것들을 소개해주시면서 학과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Q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메이크업에 대해 모두 마치게 된다면 네일아트, 피부, 헤어 모두 접하여 다재다능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 Q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관련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뉩니다. 국가 자격증에선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 피부가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업스타일을 추천합니다. 업스타일을 배우게 된다면 웨딩 분야로도 취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이쪽으로 진로를 확정하게 되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하는 건 늦은 것 아니냐며 주위에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3부터 자격증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증을 무사히 취득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라고 늦은 것은 절대 아니며 꾸준한 관심과 노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학과에 입학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에 와서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얻어가는 것도 많으며 수업 과정이나 비교과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얼마든지 배우고 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서고 대학 입시를 준비 하면서의 저는 진로에 대하여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가 무엇을 하든 진로의 길이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였다면, 미래에 나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먼저 배우고 있어보라고 권유하셨고 그게 바로 경영학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직장 혹은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는 경영이 포함될 것이라고 당부 하셨고, 그것이 나에게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원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각 학과마다의 학우들은 미래를 위한 자발성 개발을 추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의 진로목표를 설정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중 저의 관심에 사로잡힌 것은 바로 메이크업과 같이 사람을 꾸미는 활동이었습니다. 미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던 저로서는 새로운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터닝 포인트로 저는 진로계획에 한 발자국 더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과의 1학년을 마치고 의료뷰티케어학과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 나의 진로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료뷰티케어학과 교수님께서 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학생은 중원대학교 의료뷰티케어학과에서 대환영이며, 앞으로의 더욱 세분화된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없이 도와주시겠다는 믿음직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나는 엄청난 자신감과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는 아직 사교육 및 외부 환경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학능력시험 소위 수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입시 준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실반영적인 이야기로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한국에 어떠한 대학교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모르며, 학부모 및 주변 권유로 인한 경기권 혹은 수도권 지역의 대학교들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시 문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설정 및 목표에 더욱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해야 될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와 가장 많이 소통하였던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시를 위한 수능 성적(정시)을 준비하는 동안, 저의 부모님은 입시 지원을 위한 학교들을 찾아보셨습니다. 이로써 저는 현재의 중원대학교에 오게 되었고, 저의 진로에 희망과 목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입시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인성을 키워왔으면 합니다. 흔히 다들 귀찮거나 공부해야 한다는 핑계를 이용해서 편한 활동을 지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래 상당동아리라고 학생이 학생을 상담하며 어른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들을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이끌어 나가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대학생이 되어 내성적이고 부끄럼이 많은 제가 사람을 대할 때 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내가 여러 곳에 실습을 나가면서 좋은 인상을 드리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성이 얼마나 중요할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취업을 나가기 전 실습만해도 업체에서 교수님께 먼저 여쭙보는 말이 "학생의 인성이 어때요?"입니다. 즉 능력은 자신들이 키우면 되기에 인성을 큰 잣대로 보는 것입니다.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자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대학교는 장학금 제도를 살펴보면 일단 재학생들에게는 성적이 우수할 시 주는 장학금 말고도 '세계화 장학금'이라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점수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기준점 이상일 때 아끼지 않는 지원을 해주며, 학과에서 학교에서 대표의 자리에 있거나 학과 대표로 활동했을 때 '중원 리더 장학금'으로 학기마다 몇 십 만원씩 지원하는 등 이외에도 장학금이 많이 있어 찾아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학교 내의 취·창업지원센터에서는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시험을 보고 합격 시 1년에 한 명당 10만원씩 지원이 되어 학생들이 자격증 공부에 부담을 덜어준다. 그 밖에도 의료뷰티케어학과에서는 알고 싶은 직업이나 자격증에 관련하여 특강을 열어주시거나, 매년 뷰티 대회를 나갈 때 부담스러운 참가비를 지원해주시는 등의 도움을 주셔서 매년 수상자들이 배출됩니다. 이외에도 신입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관심이 있다면 중원대학교 홈페이지>교내장학금을 찾아보길 권합니다.

의료뷰티케어학과는 의료보건대학에 소속되어있는 학과로서 뷰티를 위해서 걸뿐만 아니라 인체구조 안쪽부터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기초로써 생물 과목을 추천하며,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올댓 코스메틱'이라는 책 또한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 되어 한번쯤 읽어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는 피부미용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병원코디네이터, 피부관리숍, SPA CENTER와 헤어미용으로 두피관리실, 두피 연구센터, 헤어디자이너, 개인 스타일링 메이크업 네일아트 및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웨딩숍, 코디네이터,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화장품(상품개발, 소재개발, 임상센터, 마케팅, 연구소)외에 교사나 강사의 꿈도 꿀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자격이나 시험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관련된 국가자격증(피부미용사(피부), 미용사(헤어), 네일아트, 컬러리스트)이나 민간 자격증(아로마테라피, 경락 마사지, 병원 코디네이터, 화장품 처방사 등)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자격증에 대해 찾아보고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지원을 해주십니다.



저는 4학년이 될 동안 아쉬웠던 점은 영어든 중국어든 일어든 언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 분위기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 또한 의료뷰티케어를 통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언어가 된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의 폭도 크게 확장됩니다. 학교 또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OT 때 신입생들에게 영어시험을 주고 그 레벨을 정해 교양의 필수강의로써 이수를 하면 한 단계씩 올라가 더 높은 언어력을 구사 할 수 있도록 연개강의가 개설되어있으며, 영어 카페도 교내에 있어서 열심히 자신이 관심 있는 언어를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미래에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변의 의견이나 부모님의 조언으로 학과를 오게 되어 자신과 맞지 않는 생활을 버티며 지내게 되었다면 하루하루를 힘들어하며 남 탓을 하기보단 원하는 것을 찾아 스스로 내 인생의 큰 획을 한번 그어보기를 희망합니다. 아무것도 시작하기도 전에 후회를 하는 것만큼 최고의 시간낭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대학 생활인 만큼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지면 겁부터 먹지 말고 선배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했으면 합니다. 대학은 중 고등학교와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남들이 자기 할 거 챙길 때 혼자 도태되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공공 알고 있다면 누가 어떻게 알고 챙겨줄까요?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틀에 가두지 말고 자신의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 용기를 내서 다가왔으면 합니다.





## "정보통신공학과/전자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분야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에 기반한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보시스템에 대한 계획·분석·설계·구축에 필요한 체계적인 방법론, 빠르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정보 전송 기술 등의 구현을 위해 기초 기반 학문 및 최신 기술들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정보수집 및 관리기술, 정보분석, 정보교환,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광통신, 광전송, 전파통신, 위성통신 등이 있다.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서혜빈

#### 학과, 전공 선택 이유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요즘은 컴퓨터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컴퓨터 학원에 보내셨습니다. 학원에서 가장 먼저 타자를 배우며 타자가 늘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컴퓨터 수업 시간에 반 친구들과 타자 대회를 할 때마다 1등을 놓치지 않으며 흥미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진학하여 진로 상담시간을 통해 '정보보안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직업이다 보니 처음엔 '이게 무슨 직업이지?'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둘 정보를 접하다 보니 평소 컴퓨터를 좋아하던 저에게 어찌면 적성에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흥미를 가진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보보안' 분야의 전공 체험, 진로 체험 등의 기회가 찾아왔고 여러 차례 체험을 해보며 이 분야를 진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꿈을 가지기 위해선 어떤 대학교의 어떤 학과를 가야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과 관련된 뉴스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보보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재직 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인하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준비방법

저는 인하대학교 학생부종합 인하미래인재 전형에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면접 준비를 할 때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고, 실제 면접장에서 잘 대답이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제가 지원했을 당시 인하대학교의 면접은 확인면접이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에서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에 대해 정리하고, 그에 따른 답도 열심히 적어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까지도 정리했습니다. 며칠동안 예상질문을 정리하며 이정도면 완벽하다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저는 기껏해야 한 두가지 질문밖에 답하지 못했고, 많이 떨었습니다. 이때 저는 실전과 연습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깨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통해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며 나 스스로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나의 모습을 본 친구들에게도 피드백을 받아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습니다. 물론 실제 면접장에 가서도 많이 떨긴 했지만,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면접관님들의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 🌐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흔히 정보통신공학과 하면 정확히 무엇을 배우는지 헛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과는 크게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통신을 모두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인하 대학교에도 컴퓨터공학과와 전자공학과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이 두 학과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 알게 배우지만 두 가지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은 주로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전자공학은 주로 하드웨어를 다룹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시면 안져지는 딱딱한 부품들, 즉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을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 같은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반도체, 프로그래밍, 통신 등에 대해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독학을 통해 미리 배운 상태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그 책은 'C언어 본색'입니다. 이 책을 통해 프로그래밍 전공의 기초도 쌓을 수 있었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쉽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받아쓰기, 로또 등 다양한 간이 게임을 만들며 프로그래밍에 관한 흥미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저희 과는 아주 다양한 회사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도 많이 진출합니다. 삼성 반도체, LG CNS 등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취업 후 강연을 하시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대학원에 가서 보안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더 자세하고 심도 있게 그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하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인하대학교에 재직중이신 교수님의 연구 때문이기에 그 연구를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이경서



##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의 2016년도는 2017년도에 대학입학을 원하는 평범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은 가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저는 장래희망을 정하지 못하여 과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별하여 과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듣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기고 찾아볼 생각에 설렘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다가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들을 순위를 정했습니다. 저는 취업을 제 1 순위로 생각하며 지원하고 싶은 과를 골라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것은 취업률이 높은 직업이었고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은 정보통신공학과였습니다.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알맞은 전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직업에서는 사이버수사대 웹 개발자 프로그램개발자 정보보안사등 많은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취업률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고 해서 정보통신공학과를 진학하면 학과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 전공을 정보통신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수시로 대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생기부 100%로 대학을 진학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보다 심리적으로 압박감은 조금 덜했습니다. 저는 처음 고등학교 들어오는 순간부터 종합전형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생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모든 행사참여와 대회에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생기부를 열심히 채워나가며 종합전형을 준비하였습니다.

###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수시로 대학을 준비하여 생기부를 위해서 모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핑계라고 하면 핑계지만 시험기간에 공부할 때는 활동과 병행하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생기부보다는 공부만 신경쓰면 되어서 그 부분은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 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뒤따르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이든 노력한 후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위안을 합니다. 결과물이 좋은 안 좋은 내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여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끝나고 난 후를 생각하여 버팁니다. 여기서 너무 힘들다고 그만 뒤 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후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저는 대학교 박람회 개최하면 찾아가서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커리어넷을 이용하였습니다.

### 🌐 면접/논술/적성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면접은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것과 인적성 두 면접이었습니다. 두 면접 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어두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면접을 보기 전에는 많이 떨었는데 보고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면접은 자신 있게 말을 해야 하고 나를 보여줄 짧은 시간이니 하고 싶은 말은 꼭 다 하고 '나'라는 사람이 이학과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어필한다면 면접을 잘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우선 활동을 많이 해야 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활동을 통하여 나를 표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활동을 좀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동아리를 방송부를 지원하여 들어가게 되었고 2학년이 되었을 때 방송 부장이 되어 학생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능, 소방훈련, 축제, 체육 대회등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총 방송을 진두지휘하며 관리 하였습니다. 한 번은 수능 날 영어듣기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어듣기가 틀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3분정도 지난 뒤에 서야 CD는 켜져있으나 각방에 볼륨을 높이지 않아 듣기가 조금 지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알아차려서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이를 겪고 나서는 제가 처리한 일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찔한 기억이지만 저를 한 것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은 저의 지역 근처에 장도박물관이 있는데 분기별로 열심히 가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겪어보고 느껴보고 싶어합니다. 확실히 경험해 보면 활동을 한 것과 안한 것은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자신이 직접 겪어보고 느끼는 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을 보았을 때나 저의 생기부를 보았을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궁금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파악을 한 것이 합격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영어, 수학(미적분학, 확률)

##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C언어, 자바, 파이썬, 매트랩, 신호 및 시스템, 논리회로, 통신이론, 공학수학, 화물 및 랜덤프로세스 등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건 컴퓨터 언어 C언어입니다.

##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저는 정보통신이라 컴퓨터만 중점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수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엄청 잘하진 않았던 저였는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수학이 기초가 있어야 되어서 수학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하기 싫던 과목까지도 공부하는데 지겹고 하기 싫지 않았습니다. 입학 후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저는 저의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로봇에 주입시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로봇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전공 알림이에 들어가 학교탐방을 오는 학생들에게 가이드가 되어 설명을 하고 대학박람회에도 참여하여 선생님들 옆에서 보조를 하는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저희 과에 오시면 보통 컴퓨터를 거의 중점으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매체들의 통신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배웁니다.



##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저희 학과와 아주 유사한 학과가 있습니다. 그 과는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컴퓨터 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의 공통점은 배우는 과목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컴퓨터 용어들 컴퓨터 구조등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저희는 컴퓨터 공학과보다 수학과목을 더 많이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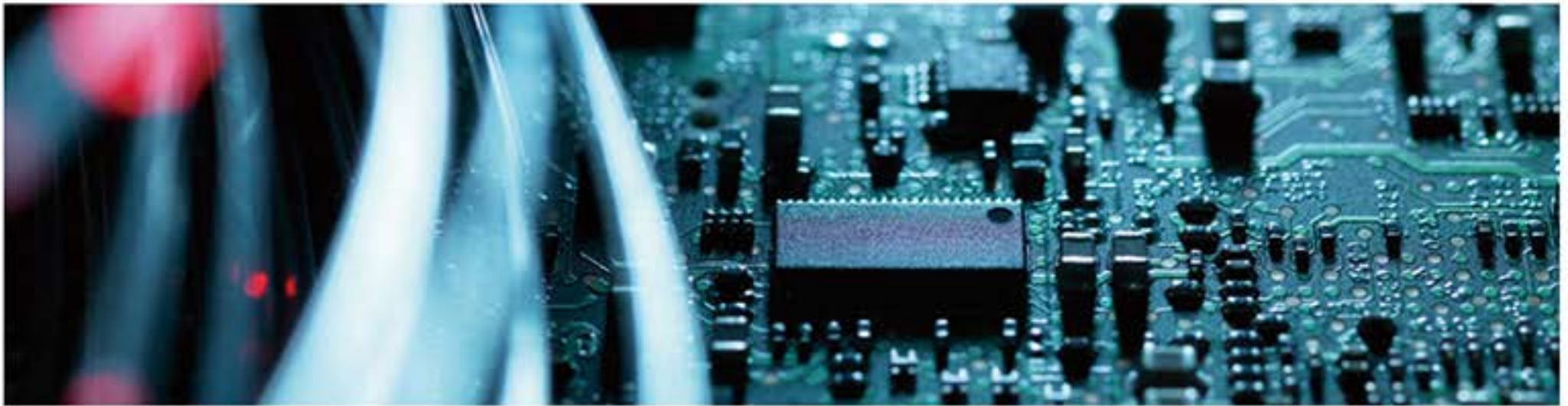
저희 과는 컴퓨터와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합해 통신을 배웁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모든 언어와 확률 기계구조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다른 과들 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분야도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들은 기업의 전산실과 삼성SDS,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 또한 웹 개발자 정보 보안 사이버 수사대등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나갔습니다. 제가 본 선배님들은 항상 뭐든지 참여하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를 본받아 저도 그렇게 보이는 선배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저는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보안으로 취업을 나간 선배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는 정보보안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안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더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이후에는 사무자동화기사 정보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무선설비기사 컴퓨터 활용능력1급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할까요?

조광제 선생님(문현고)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노력에 대해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고, 나보다 더 적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도 더 나은 결과를 얻는 사람을 보면 어떤 비결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대답 중에서도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 수업에 임한 학생의 결과가 더 우수하다는 의견엔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시간의 수업 중 더 공부가 잘된 시간은 더 집중하여 수업에 임한 시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여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반대로 누가 가장 수업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집중하지 않고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바로 집중력의 차이에 있음을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을 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어야만 합니다. 집중의 방해 요인을 찾아 그것을 없애는 노력을 동반하면 당연히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 1. 수면 관리를 잘해야

사람은 누구나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졸음입니다. 누구도 졸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신체가 요구하는 하루 수면량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6시간의 잠만으로도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8시간의 수면시간이 확보되어야만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인 사람이 6시간의 잠을 잔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2시간의 잠을 더 확보하기 위해 생리적으로 뇌를 졸게 만들어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체리듬을 잘 살피 자신의 신체가 요구하는 수면 시간을 알고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합니다.



만일 학습 시간이 부족하여 신체가 요구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더 적은 시간의 잠으로도 견딜 수 있도록 생체 리듬을 바꾸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 2. 수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수업 내용이 관심 없거나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집중력은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예를 들어 비 수능교과목이나 교과 전형에서 미반영과목의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이유와 동일한 이치입니다. 수업의 내용을 조금 알고 공부의 방향성을 이해한 상태에서의 수업은 집중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습을 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더 하게 되고, 몰랐던 것들을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모르는 수학 문제는 해답을 보고 푸는 것이 아닌 이렇게도 풀었다가, 저렇게도 풀었다가 하면서 응용력을 기를 수도 있으며, 뭐든지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하고 하는 것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3. 스스로 면학 분위기 조성해 힘써야

열심히 공부하는 상황이어도 주변의 원치 않은 소음으로 인해 집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습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 이유와 학급의 면학 분위기 조성도 모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선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점심시간 학습장소로 도서관, 정독실, 열람실 등의 이용도 한 가지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로 인한 학습방해는 아주 흔한 경험입니다.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도중 울려온 휴대 전화 음으로 순간 집중을 흐트리게 되며, 학습 도중 울려온 카톡음으로 관심이 흩어지는 경우도 흔히 경험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끄도록 하는 것도 집중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학습 환경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해서 집중력을 높여나가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 4. 필기는 필수요소

수업 내용을 장기기억화 시키는 과정은 필수과정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고 있던 기억도 자연스럽게 휘발되어 소멸합니다. 따라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선 휘발되기 직전 복습을 함으로써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습득한 지식은 여러 번의 복습 과정들을 거쳐 장기기억으로 변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트 필기는 필수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습 주기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는데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은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이론으로, 사람의 기억은 학습 후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되어 1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학습한 정보의 50%가량을 망각하게 되고, 하루 뒤에는 70%가량을, 한 달 후에는 80% 이상을 잊게 된다는 자신의 이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에빙하우스는 이러한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습이며, 복습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 주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최초 학습 후 10분 뒤에 복습하면 하루 동안 기억이 유지되며, 하루 뒤에 다시 복습해주면 일주일, 일주일 뒤에 다시 복습하면 한 달간 기억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한 달 후 해당 내용을 다시 복습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기억이 유지되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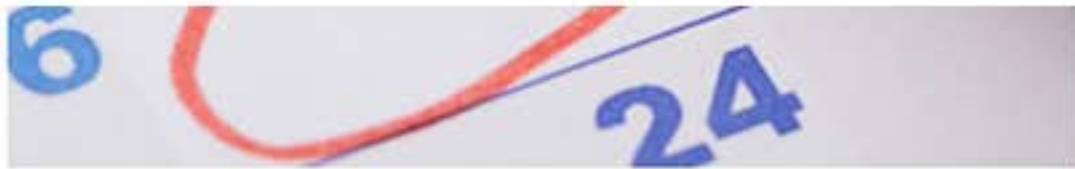
### 5. 그리고 공부할 시간과 양,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사람은 단기목표가 정확할수록 집중을 더 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구나 축구와 같은 운동을 하거나 컴퓨터게임을 할 때면 누구나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여 운동이나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시간 안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아주 강한 집중을 하는 경우와 같은 이치입니다. 공부도 목표가 정확해야만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막연히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하루, 일주일, 한 달 간격으로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기, 일주일에는 몇 장 이렇게 말이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달력에 목표를 이룬 날에 O 표시를, 이루





지 못한 날에 X표를 그려보면 눈으로 확인이 되기에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별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도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6. 학습 시간을 늘려야

공부를 잘하려면 우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부터 늘려보세요.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만 조금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때 등등... 자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혹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잠깐 나가서 놀까?', '문자 하나만 보낼까?'라는 생각이 들거나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만'이라고 외치세요. 아직 적응하는 단계야, 다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집중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길 바란다.”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19학번(수시 학생부종합전형)

## 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노하우

1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과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관련 활동을 꾸준히 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가 해당 학과와 학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물이며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것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학년 때 자율동아리를 하면서 교과 내용과 관련한 심화 보고서를 작성했고, 참고한 교과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생활기록부에도 기록했다. 과목 세부능력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담임이 기록할 수 있는 세부능력특기사항에 기록했다. 또한 미술 관련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비슷한 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과 전시 관람, 관련 도서 독후감쓰기 등의 활동을 했다.



1학년 때는 다양한 과목 독서를 하고 2학년부턴 학과 관련 과목 독서(미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3학년 때는 학과 관련 과목 심화 독서만 기록했다.

2학년 때부터 교실 앞 복도에 있는 액자를 닦았는데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에도 작성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활동을 분류하다 보면 부족한 활동이나 더 해야 할 활동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2학년 겨울방학에는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3학년 1학기를 이용하여 더 필요한 활동을 하여 채우면 된다.

## 2 내신 성적 관리 팁

내신은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수업시간에 했던 필기와 중요한 부분은 다 외웠다. 공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고, 교과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문제집을 풀었다. 확실하게 아는 문제가 아니면 표시해두고,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풀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해서 의문점을 해결했다.







내신 시험 3~4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공부했다. 그 날 배운 것은 야자 1교시까지 복습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신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A4용지에 주말을 제외한 1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시험 계획을 세웠다. 주말에는 주중에 못한 공부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부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할 부분을 파트별로 나누어 몇 번씩 반복했는지 표시했다. 상대적으로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았던 영어와 개인적으로 취약한 과목이었던 수학은 매일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표와 내신 반영 비율을 고려하여 적정 하루 목표 공부량을 계획했다. (예를 들어 시간표가 국어 수학 영어 미술 체육 일본어라고 한다면 영어 수학 국어 시험공부를 그 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 시간표를 고려하여 최종 마무리 계획을 세웠다.

### 3 수시(정시/논술) 준비 성공사례

자기소개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다. 반복해서 고칠수록 좋은 글이 나온다. 원하는 학과의 인재상과 커리큘럼 등을 찾아보고 자기소개서에 녹여내고자 노력했다. 자기소개서를 친구들과 돌려보지는 않았다.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자기소개서에 비슷한 문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대학의 웹진을 참고했다. 자기소개서 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셨던 선생님과 상의했다.

면접은 실전 연습을 많이 했다.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서로 피드백을 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부탁하여 선생님과도 모의 면접을 했다. 친구들의 시각과 선생님들의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모의 면접에서 놓친 부분을 선생님이 잡아주실 수 있었다.

또한 어디가의 학생부 성적 분석(주요 교과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시 성적을 예측해보았다. 학년별 교과 추이와 전학년 교과 비교를 확인하고 교과 성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참고하였다.

### 4 수능 공부 노하우

내신 공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수능 공부를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수능에 집중한 건 내신이 모두 끝난 7월부터였다. 6월, 9월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를 제외한 문제는 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6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을 반복해서 풀었다. 최근 3년 기출은 3회독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하고, 가능하다면 5년 전까지도 푸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끝난 뒤 남은 시험지가 있으면 과목별로 최소 3개씩은 챙겨 와서 수능 직전에 다시 풀어 보았다. OMR답안지는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실전 연습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다.

실제 수능 시간표와 유사하게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모든 과목에서 수능특강, 수능완성,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고 개념을 확인했다.

#### 국어

국어에서 화작문 부분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작문 문제를 풀었다. 문법은 수능특강, 수능완성과 기출에서 틀린 문제와 헷갈리는 개념에 대한 문제만 반복해서 풀었다. 3개년 기출과 수능특강, 수능완성만 반복해서 봤고, 비문학은 하루에 1~2지문씩 지문분석하고 지문에서 답인 이유/답이 아닌 이유를 찾아서 선지 옆에 적었다.

#### 영어

영어 단어는 단어책 하나를 반복해서 외웠고, 고3때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있는 단어와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만 계속해서 외웠다.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자투리시간을 이용하여 반복해서 외웠다. 실제 수능 때는 밥을 다 먹고 30~40분 후에 듣기 문제를 풀기 때문에 매일 점심을 먹은 후 약 30분 후에 듣기문제와 듣기를 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프린트해서 풀었다.

#### 사회 탐구

사탐은 EBS교재에 나오는 개념을 다 외우고 노트를 만들어서 왼쪽에는 개념, 오른쪽에는 들렸거나 헷갈린 선지를 적었다. 특히 사회 문화에서 취약한 부분이었던 표분석 문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에서 표분석 문제만을 골라 반복해서 풀었다. 그리고 10분 간격으로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플래너를 사용했다. 놓치고 있는 자투리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 과목별 공부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했다. 수능시제도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약 2분 18초정도 빠르게 맞춰 놓았다.

6월 모의고사부터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실제 수능처럼 밥을 먹었고, 친구들에게도 말을 걸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실제 수능과 같은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수능 2주전부터는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고, 아침밥을 꼭 먹었다. 시험이 끝나는 4시 반 전에는 절대 잠을 자지 않고 피곤하면 이 시간이 끝난 뒤에 잠깐씩 잠을 잤다. 원래 물을 많이 마시는데, 수능을 약 1주일 남긴 시점부터는 수능이 끝나는 시각인 5시까지 최소한 양의 물을 마시는 등 수능과 비슷한 생활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내 몸을 수능 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수능 당일에는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시험 쳤던 고사장에서는 개인용 수정테이프 사용이 불가능 하는 등 유의사항 안내 종이에도 허용된다고 쓰여 있는 내용이 수능 당일에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등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길 바란다. 그리고 수능장은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다. 쉬는 시간에는 여기가 수능 시험장인지, 학교 동창회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조용한 환경보다는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 “자신의 진로를 많이 고민해보고, 선택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밀화학과 19학번(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 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노하우

애초에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부터 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대입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고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흔히 생기부라 칭하는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데 힘썼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진학을 원한다면 첫 번째로, 무엇이든 열심히 참여하려 하십시오. 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대학을 갈 목표가 확고했기에 교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여러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중 몇몇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말 그대로 학교생활이 우수한 학생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것은 자신이 챙겨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시오. 자신이 한 활동들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활동은 의미 없게 됩니다. 자신의 성적을 챙기는 것 뿐만 아니라 활동들을 챙기며 상기해 놓는다면, 이후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2 내신 성적 관리 팁

학교마다 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이 다르고 선생님들의 성향도 다르지만 저의 학교를 기준으로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어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학같은 경우, 인물들의 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내용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냥 읽을 때 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문학은 공부법이라기보다는 평소에 책을 얼마나 읽었냐에 따라 실력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은 수업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질문을 통해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 수학

수학은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개념을 먼저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념이 이해가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의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공부하는걸 추천합니다. 또한 답지부터 펼쳐보는 것 보다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30분 정도는 투자해 생각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을 떠올려보고 여러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해보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 영어

내신영어는 솔직히 말해서 노력입니다. 수능영어와 다르게 내신영어는 배운내용 즉 이미 알고있는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수시 준비 성공 사례

1번 항목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전형을 알고 목표로 삼고 고등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 성공을 위해서



는 자신의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것을 찾으세요. 즉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가' 사이트에서 진로정보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아주 많은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적성과 맞는 직업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화학에 관심이 있었고, 연구원 또는 교수가 제 적성에 맞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 직업을 바탕으로 저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진로를 많이 고민해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면 자기소개서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원까지 합하여 총 7개의 자소서를 2달동안 쓰고, 조언을 받으며 수정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많이 써볼수록 점점 필력이 좋아지고 완벽한 자소서를 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 수능 공부 노하우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능공부를 가장 집중해야할 때인 고등학교3학년 여름방학 때 자소서에 매달린다고 수능공부에 소홀해졌습니다. 9월 모의고사 때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게 되었고, 바로 원래 페이스대로 다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수능을 치르기 전에는 물론 실력싸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멘탈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신력이 흐트러지면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무리하게 됩니다. 계속 무리하다보면 어느 순간 건강과 생활 패턴이 꼬이게 되고, 수능당일 자신의 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수능 2주 전부터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며 생활패턴을 수능에 적합하게 맞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가보면, 생활패턴 때문에 국어시간이나 영어 듣기 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보다는 좋은 생활패턴으로 마음 편히 시험장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